

YWCA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보수)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YWCA의
전국 회원YWCA 가족

가
강릉 033.651.1385
거제 055.682.4950
경주 054.772.8141
고양 031.919.4040
광명 02.895.1966
광양 061.762.0012
광주 062.524.3511
김해 055.332.6000

나
남양주 031.577.7762
남원 063.632.7002
논산 041.736.7393

다
대구 053.652.0070
대전 042.254.3035
동해 033.531.3007

마
마산 055.246.8746
목포 061.242.1611

바
부산 051.441.2221
부천 032.668.9700

사
사천 055.833.2344
서귀포 064.762.1400

서울 02.3705.6000
서천 041.951.6400
성남 031.708.2503
세종 041.865.0872
속초 033.635.3523
수원 031.252.5111
순천 061.744.7990

아
안동 054.854.5482
안산 031.483.6536
안양 031.455.2700
양산 055.367.1144
여수 061.654.2161

울산 052.247.3520
원주 033.742.6090
의정부 031.853.6332
익산 063.857.8910
인천 032.424.0524

자
전주 063.224.5501
제주 064.711.8322
제천 043.646.6009
진주 055.755.3463
진해 055.542.0020

차
창원 055.283.9488

천안 041.575.0961
청주 043.265.3700
춘천 033.254.4878
충주 043.848.3240

타
통영 055.646.2547

파
파주 031.945.5998
평택 031.651.7701
포항 054.274.4444

하
하남 031.793.7771

※ 조차원Y가 세종Y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 2012 Vol. 492 7+8
YWCA



한국YWCA 한 세기를 향하여



글 | 정희경(연합회 명예연합위원)

내가 1971년 이화여고 교장으로 부임했던 해는 학교의 창립 85주년을 맞이하는 해였고 그것은 한국에서의 최초의 여자 중등교육의 창설이라는 뜻에서 무척 감격스러운 일이었음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올해가 한국 YWCA 창립 90주년을 맞는 해라니 이 또한 매우 뜻 깊은 경사라 아니 할 수 없다. 한국 최초의 여성 운동체로서의 탄생이 어찌 예상로 일이라 하겠는가. 1922년이라면 일제(日帝)가 한반도에서 본격적으로 제국주의적 압제를 떠나갈 무렵이었고 더구나 여성들은 역사 깊은 남존여비사상이 지배하던 사회에서 여전히 변두리 존재로 숨죽이며 살던 시대에 속하는 시간이었다. 웬만한 비전과 용기가 없이는 도저히 감행할 수 없는 하나의 모험으로써의 여성단체 설립이었으니, 매우 역사적인 사건이었음은 분명하다. 9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한국YWCA는 참으로 수많은 여성지도자들을 불러들이고 또한 배출해냈다. 기독교 신앙에 굳건한 터를 닦고 순수한 시민단체로서 한국YWCA가 이 땅에 끼친 영향, 특히 여성의 세계에 미친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하겠다. 시대에 따라 활동 참여자나 활동 대상이 조금씩 차이는 있었으나 청소년Y가 강할 때나 대학Y가 강했을 때, 성인 활동이 강했을 때 가릴 것 없이 Y가 우리사회에 건네준 메시지는 늘 그 울림이 강했다.

돌이켜보면 YWCA만큼 다양하고도 풍부한 여성지도자들을 가지고 있었던 단체는 없었고 지금도 그 사실은 변함없다. YWCA만큼 미래지향적인 사업목표를 제시해 온 단체는 없었고 지금도 그런 것 같다. YWCA만큼 탄탄하게 준비된 풍부한 실무진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없었고, 그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일 터이니 한국사회에서의 YWCA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신 혜택임이 분명하다.

이제 우리는 또하나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있음의 깊이 새겨

야 할 것이다. 우리 YWCA 참여자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은 조금씩 다를지언정 자랑스러운 YWCA 100주년을 향한 든실한 거보를 내딛어야 하는 임무를 지니게 되었다. 지금껏 최선을 다하여 역사의 부름에 충실히 대응하면서 우리의 사업을 펼쳐왔지만 이제 앞으로 다가올 10년은 우리사회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강도와 속도를 지닌 사회적 변화의 파고(波高)의 밀물이 예측되고 있는 십년이다.

나는 한국YWCA 90년을 여러 동지들과 자축하는 일 못지않게 앞으로 우리가 내딛어야 하는 발 한발이 시대의 변화에 걸맞은 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절감하는 일에 더욱 주목해야 된다고 믿는다.

우선 YWCA 구성원은 늘 젊고 푸른 기독교정신을 지니고 활동하여 왔지만 좀더 욕심을 낸다면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움직여 참여시키는, 실제로 젊은 기독교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열정을 가지고 개발해야겠다. 청소년기에 그들의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오늘의 각박한 생활을 언제까지나 바라보고 있기보다는 청소년 관련 당국 그리고 학교 당국을 움직여 청소년을 위한 YWCA 활동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한국YWCA 위치에 걸맞은 지경의 확대를 시도할 의무가 있다고 믿어진다. 우리 YWCA의 80주년을 기념하여 연변에 YWCA의 씨앗을 뿌렸듯이, 창립 한 세기를 기념하여 YWCA 활동의 불모지를 찾아 우리가 입었던 혜택을 나눔으로 또 다른 YWCA를 창립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 한국YWCA의 위력을 외국에 나가서 바라보면 더욱 크게 느껴질 만큼 우리는 90년의 역사를 충실히 지켜 성장했으니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반드시 나누어 주어야 할 듯하다. 우리의 100주년을 향한 거보(巨步)를 하나님께서 분명 축복해 주시리라 믿는다. 



Cover Story

YWCA 키다리학교 입학식

7월의 태양빛만큼이나 뜨겁고 기운찬 에너지를 물씬 풍기는 키다리 청소년들이 모였다. 손끝만 닿아도 터질 듯 투명하고도 순수한 꿈을 가진 키다리 청소년들. 그들이 만들어 갈 세상이 방울방울 그려진다.



Contents 2012 Vol.492 7 + 8

- 03 90주년 특별기고 ● 한국YWCA 한 세기를 향하여 | 정희경
- 04 YWCA 역사읽기 ● YWCA 지역조직 확장 그리고 에피소드 | 이진용
- 06 YWCA 90주년 지금 이순간 ● ① 미리 보는 한국YWCA 90주년 전국회원대회
● ② 강릉YWCA 평화순례-시민과 함께 한 평화순례 | 고문희
- 10 Y-정책 | Y돌봄 연구소 ● YWCA 직업훈련의 역사 | 차경애
- 12 | Y돌봄 현장 ● 2012 YWCA 돌봄미대상 수상자, 30년을 돌아보며
- 14 YWCA와 사회 ● '성평등 국가'에 대한 비전 | 김은경
- 16 체험, Y현장 ● 키다리 입학식 하는 날 | 고은희
- 18 조명 : Y가 만난 Y사람들 ● 기부천사, 리치몬드 제과 명장 권상범
- 20 북한을 만나다 ●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리고 질문하라! | 김은주
- 22 제3차 YWCA 평화포럼 ● 북한이탈주민과 평화, 어떻게 이를 것인가? | 평화나눔팀
- 23 성명서 ● 고리 핵발전소 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한국YWCA 성명서
- 24 새로 시작하는 Y운동
- 25 월례아침기도회 ● 감사의 영성 | 이천진
- 26 연합회 소식
- 27 회원YWCA 소식

제48권 제6호 통권 492호 2012년 8월 10일 발행(등록번호 라-746호) 발행 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차경애 편집인 유성희 편집위원 김진형·백수경·윤혜원·이경순·이은영 편집 박은실·이주영·정서연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1가 1-3 한국YWCA연합회 전화 02-774-9703 팩스 02-774-9724 http://www.ywca.or.kr 편집디자인 (주)세이미디어(02-730-0746) 구독신청안내 구독신청료 1만 원(1년분)을 내시면 매회로 보내드립니다. 농협 386-17-000052(한국YWCA연합회) 송금 후에는 연합회 사무실로 입금 사실을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YWCA 지역조직 확장 그리고 에피소드

글 | 이진용(연합회 영상팀 위원)



“요람에서 무덤까지” YWCA 회원 대상의 다양성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한국YWCA는 1960-1970년대 중반까지 대학YWCA 운동의 전성기였다.

1970년대 Stand YWCA-사회정의실천에-Y-틴 활동(청소년)도 큰 인기가 있었다.

YWCA 회원으로 어린이(10세 이상), Y-틴, 대학생, 청년, 성인 회우(남성), 많은 회원기관(단체)들이 있다. 이는 YWCA만이 갖는 자랑이며 특징이기도 하다. 온 가족 모두가 YWCA 회원이 될 수 있다.

1922년 한국YWCA 창립 당시 조선Y연합회에 가입된 회원Y는 광주, 서울에 이어 대구, 선천 여자기독교청년회가 있었고 1923년 원산, 평양, 안주 여자기독교청년회 등 지방 7곳과 대구 신명, 부산 일신, 이화, 정신, 배화, 협성여자성경학원, 개성 미리암, 공주 영명학교 등 13개교 여학생Y가 있었다.

이후 1972년(YWCA 50주년)에는 18개 회원Y, 29개 대학Y가 되었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열악한 지도력과 재정으로 활동이 저조한 회원Y가 많았다.

그런데 서울Y에서 1969년 연합회 총무 책임을 맡은 박순양 총무는 꿈도 크고 계획도 많았다. 그중 하나로 지금은 없어진 위원회이나, 조사연구위원회(위원장 정희경, 간사 이진용)가 1969년 말부터 여성능력개발 등에 관한 연구, 청소년 연구 등을 활발히 진행하여, 연구된 자료가 신문기사 ‘여성은 직장의 꽃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되기도 하였다.

연합회는 열악한 회원Y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회원Y를 번

화·발전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게 되었다. 연합회 연구과제였다.

조직개편에 따라 지방부 명칭이 지방조직위원회로 바뀌었다. 그 때 연합회에서는 지방 순회를 통해 회원Y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결의하여 지방 순회 간사제도를 시작하였다. 필자인 나는 그 당시 지방 순회 간사가 되어 1973년 3월 전남 순천Y로 지방 순회를 갔다. 그 당시 순천은 무급 총무였다. 그런데 연합회는 지방 형편을 헤아리지 못했는지 출장자의 재정여비만 지출하고 숙식 해결은 지방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참으로 지방 형편을 너무 몰랐었다고 할 수 있겠다. 순천은 연합회 지방순회 간사와 함께 낙후된 시설 개조, 환경정리, 인근지역 어린이 사업을 제안하였다. 지방 순회지였던 마산Y도 무급총무였다. 1974년 마산 지역이 자유수출 지역으로 되면서 근로여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연합회는 AID 지원사업으로 근로여성사업을 시작하였다. 서울Y 독산동 근로여성회관, 마산 근로여성들을 위한 야간학교 개설, 근로여성을 위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후 마산Y는 회관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 전력하였다. 그 당시 회장이었던 김경애 선생은 재정, 시간 등을 전적으로 헌신하였다.

1974년 세계Y 실행위원이었던 김현자 선생(당시 실행위원)은 회원운동으로서의 Y회원의 규정 검토 작업을 시작하였다. 18개 회원Y를 전국지도에 표기하였고 지방의 발전을 위해 지방조직위원회의 명칭을 지역위원회로 개칭하였다. 그리고 전국을 크게 동부(호남과 영남)와 중부 두 지역으로 나

누기로 결의하였다.

연합회는 지방조직의 확장과 발전을 위해

- 회원증모운동 지원
- 회원관리를 위한 자료 개발 및 보급
- 전문화된 회원 확보 방안 연구 및 회원의식 강화에 주력하였다.


회원Y 운영을 위해 지원이 필요했던 사업이 재정지원이었다. 연합회는 1967년부터 연합회 강당에서 YWCA 기금모금을 위한 대바자회를 열었다. 각 회원Y의 어려운 재정을 타개하기 위해 열린 ‘팔도강산 바자회’는 전국Y가 실시한 자구책이었다. 지금은 유통구조가 잘 정비되어있고 시장, 대형마트, 백화점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유통이 부진하였다. 그래서 전국 토산품이 한 자리에 모이는 바자회가 큰 인기를 끌었다. 1984년에 열린 ‘팔도강산 바자회’는 각 지방 회원Y의 특산품이 집합하였다. 회원Y와 실무자 간에 좋은 자리를 맡기 위한 신경전이 대단하였다. 연합회에서는 품목별로 자리를 배치하였다. 연료를 사용하는 물품, 냄새가 나는 물품, 운반이 어려운 물품은 회관 밖에 진열되었고,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순천Y의 담양 죽제품이 강당 무대를, 마산Y의 몽고간장이 현관을 차지하였다. 현관 밖에서는 수원Y의 빈대떡이 인기였다. 조치원Y의 참기름은 대단히 인기가 높아 구입 순번에 따른 번호를 나누어 주기까지 하였다. 광주Y의 영광굴비의 인기는 MBC 방송에 나갈 정도로 엄청났다. 팔도강산 바자와 관련한 에피소드들이 여럿 있는데, 연합회 회관이 양일간 장터로 활용되어 임대사무실의 사장님과 직원들에게 미소작전을 펼쳤고 여수Y와 사천Y는 서로 자기 지역 쥐포가 맛있다는 쥐포전쟁을 벌이기도 했으며, 수원Y 정춘자 회장 부군이 ‘명동가서 부침개 장사하려면 이혼하고가라’ 할 정도로 열정적이었다. 또한 그 당시 마산Y 총무 이명혜 총무(현 실행위원)은 하이힐 신고 무거운 몽고간장을 배달하였다.

회원Y 확장에 따른 프로그램 지원으로 소비자 운동을 펼쳤는데, ‘소비자운동은 인권운동이다’는 주제로 송보경 선생이 강의를 하였다. 그 당시 설치된 현수막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사회적으로 ‘인권’이라는 문구가 신경 쓰였던 것 같다.

또한 Y-틴 회원 활성화를 위한 자료를 전국적으로 사용하였는데, 명상과 기도(격월), 회원 스카프 등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대학Y 중앙임원들의 단합을 위해 1971년 담당실무자, 임원들의 단합대회가 있었다. 연합회에서 이종경, 이진용, 차경애, 서울Y에서 김은경, 신희은 간사가 남한 일대를 배낭을 메고 지역탐방을 하면서 과제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억나는 Y-틴 지도자로 문제 많은 청소년들을 보살펴 주시던 정진홍 교수(서울대 명예교수), 김영운 목사(한양대 교목실장), 대학 Y의 영원한 오빠 김영일 교수(이대 명예교수), 연합회로부터의 대어진 대어진 대어진을 위해 제주, 간장, 된장의 명수가 된 청주Y 정정자, 최현자, 신영희 사무총장, 회원증모 기간 전국이 무대가 되어 회원모집에 앞장섰던 조아라 회장, 협의회, 대회 때마다 떡과 불똥을 나누어주신 문태임 회장, 김갑현 회장, 1980-90년 회원Y 확장 위해 수고하셨던 역대 위원장 특히 김갑현 회장의 헌신은 회원Y 많은 지도자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기억에 남는 지도자다. 그밖에 여러분, YWCA와 함께 잇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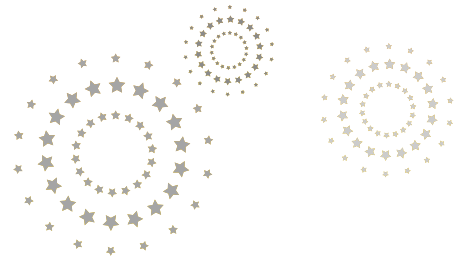
(1970년대) 버들캠핑장에서 협의회 대회를 마치고 김신실, 김애마, 이마리아, 박에스터 선생님이 둘러앉아 나누시던 대화가 기억난다. “Y운동은 미쳐야 한다.”

Y는 자원지도자와 실무자가 쌍두마차가 되어 균형을 잃지 않고 달려야 한다. YWCA 100년을 향한 전문지도력양성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신앙의 공동체 회원 기관으로 끊임없이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20)



● 팔도강산 바자회(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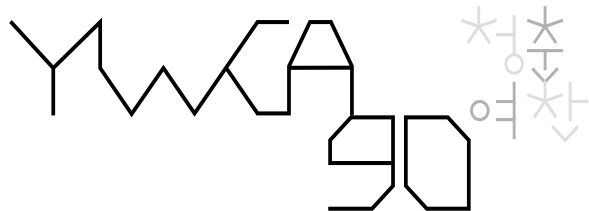


미리 보는 한국YWCA 90주년 전국회원대회

한국YWCA는 창립 90주년을 기념하며 국내 최대, 최고의 여성단체 YWCA 회원이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8월 18일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YWCA 비전을 나누기 위하여 '한국YWCA 90주년 전국회원대회'가 열린다. 한국사회에 정의, 평화, 생명살림을 일구어 온 주역이 YWCA 회원이기에, 한국YWCA 90주년 전국회원대회에 모인 YWCA 회원 모두가 YWCA 100년을 향한 가슴 벅차오르는 비전 수립 및 선포의 주인공이다. YWCA 회원이 한 자리에 모이는 기쁨의 자리는, 동시에 YWCA 목적을 세상과 사회 속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결단의 시간이 될 것이다.

- **시간** | 2012년 8월 18일(토) 11:30~17:00
- **장소** |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서울 송파구 위치)

● 일정	시간	제목	내용
	11:30~12:00	만남	• 만남
	12:00~12:30	시상식1	• 좋은 TV 프로그램 상 시상식
	12:30~13:00	靑	• 공동체 놀이
	13:00~13:20	春	• 회원Y 기입장 • 개회선언 • 국민의례 • 환영사 - 차경애 한국YWCA회장 • 축사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 YWCA목적문 낭독 및 회가 제창
	13:20~14:00	女	개회예배
	14:00~15:00	시상식2	내부 시상 및 포상
	15:00~16:00	비전 선포식	• 100주년 비전 선포 • 90to100 프로젝트 발대식
	16:00~17:00	讚	• 임형주 공연 • 천태혁밴드 찬양
	17:00		• 닫는 의식



10:00 ~ 11:20 등록
기쁨과 만남의 장으로 입장

11:30 ~ 12:00 만남 / 천태혁밴드 찬양
찬양 | 아주 먼 옛날, 나의 가장 낮은, 하늘 위에 주님밖에,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좋은사람

12:00 ~ 12:30 시상식1 / 제16회 YWCA가 뽑은 좋은TV 프로그램 상 시상식
대상 | MBC창립 50주년 기념 휴먼다큐멘터리 '사랑'
여성 | KBS TV 소설 복희누나
평화 | ubc 시사기획 인사이드 <전원 공급 중단사태, 침묵의 원전>
청년·청소년 | SBS스페셜 '기적의 하모니'
특별상 | JTV 피우자 민들레-종일씨의 행복의 나라로

12:30 ~ 13:00靑(靑) / 공동체 놀이
다함께 공동체 체조

13:00 ~ 13:20春(春) / 개회식
환영사 | 차경애 한국YWCA연합회 회장
축사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13:20 ~ 14:00女(女) / 개회예배
말씀 | 이천진 목사(공정교회)

14:00 ~ 15:00 시상식2 / 내부 시상과 포상
YWCA대상 | 정희경 연합회 명예연합위원
문태임상 | 배영자 대구YWCA 증경회장
박에스더상 | 김경천 광주YWCA 전 사무총장, 아혜경 목포YWCA 전 사무총장
봉사상, 근속상, 돌보미상

15:00 ~ 16:00 비전선포식 / 100년 비전선포, 90to100 프로젝트 발대식

● 90to100 프로젝트 발대식

- ① 생명나무 | 2012년 ~ 2022년 생명나무학교 개최 → 나무 '살림' 프로그램
- ② The SUP(Self Upgrade Project 자기개발프로젝트) | 2012년 ~ 2022년까지 멘토-멘티와 함께 100가지 분야, 100명의 여성전문인을 키우는 프로젝트
- ③ 통일리더십 아카데미 | 새터민 대상, 유아교육전문가 양성, 통일지도자 양성과정, 통일정보종합지원센터, (한국)청소년 통일 활동가 양성과정
- ④ The 대추 | YWCA '대잇기 추진단' 2대 이상 YWCA활동 회원 양성
- ⑤ 비전연극, 비전영화

●● 100년 비전선포

한국YWCA 100년을 향한 '청·춘·여·찬' 비전 선언
- 청소년, 생명, 여성, 소통과 참여의 YWCA 운동비전 선포

16:00 ~ 17:00讚(讚) / 작은 음악회

특별공연 | 팡페라 테너 임형주

찬양 | 천태혁밴드

예수로 나의 구주,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 기뻐하리, 생명 주께 있네, 마지막 날에, 지금은 엘리야때

17:00 닫는 의식 / 세상의 빛이 되리라

찬양 |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희망과 용기,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삶의 현장으로 행진

SK 올림픽핸드볼 경기장에 도착하면

- **주출입문**
핸드볼경기장 2-3문
- **가장 가까운 주차장**
북2문을 통해 임시주차장(체조경기장 앞) 하차
-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
5호선 올림픽공원역 3번 출구
- **지하철역 가까운 입구**
동2문

우리 지역이 앞아야 할 자리는?



회원Y 사전 준비사항

- 1 회원YWCA 비전을 회원들과 공유하기
- 2 90to100 프로젝트별 사전모임 갖기
- 3 천태혁명밴드와 함께 부르는 찬양 연습하기
- 4 개인별 Y장바구니 지참, 여분의 식수 별도 준비
- 5 YWCA 전국회원대회를 설렘으로 기대하기

당일 생활관련 공지

- 1 행사장 실내 온도(28도)
- 2 앉은 자리와 가까운 출입문 확인하기(주출입문 2-3문)
- 3 1층과 2층에 위치한 화장실 이용하기
- 4 연합회 본부 사무실 : 131호
응급실 : 130호
- 5 당일 지정된 장소에 분리수거 하기

남한을 가로질러 강릉까지

시민과 함께 한 평화순례

글 | 고문희(강릉Y 회원위원회 이사)

한국YWCA 창립 90주년을 기념하여 남한을 가로지르는 평화순례가 지난 4월 광주에서 시작되어 중부지역과 서울을 거쳐 강릉Y로 이어졌다.

한국Y가 사회적으로 평화의 정신을 확산하고 운동의 지평을 넓히는 등 새로운 평화운동의 장을 열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평화정신이 우리 사회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회원Y와 함께 일반인의 참여를 독려하는 운동으로 평화순례를 전개하였다.

이에 강릉Y는 지난 7월 16일, 제24차 강릉YWCA 회원대회를 YWCA 평화순례와 함께 하여, 평화운동이 사회운동의 의미를 갖도록 하며, 또한 YWCA에서 실천하는 평화의 이미지를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Y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던 이날 행사는 경포의 인공폭포에서 그 막을 열었다. 오전 9시 50분 등록을 마치고 10개 조로 나누어 모듬장과 회원이 함께 구호 동작을 먼저 만든 후, 인공폭포 앞에서 동작과 함께 주제 구호를 강릉시민을 향해 외쳤다. "Peace is our Hope" "YWCA는 평화를 만드는 힘입니다." "YWCA는 '다르다' 는 이유로 가하는 모든 종류의 차별, 억압, 불평등이 없는 사회를 위해 노력합니다."


힘찬구호를 외친 다음 각 조별로 미션봉투를 받아들이고 순례길에 올랐다.

경포해변데크를 걸어가면서 만나는 시민들에게 북녘 땅 우리 아이들의 현실은 급성영양 장애 7%, 만성 영양결핍 37% 임을 설명하면서 사랑의 분유보내기 후원금을 모금하였다. 아울러 북한주민을 위한 평화운동 서명을 받았다. 부지런히 걸으면서 시민들을 만나 서명을 받고 후원금을 모금하면서, 주어지는 미션들을 재미있게 이행하였다. 모두가 모두 같은 동작으로 찰칵! 마음이 하나가 되었음을 순간 포착!!

다음 미션 '민들레 노래부르기' 는 조별 모두가 질세라 목청껏 노래를 불렀다. 순례길 이 넓은 바닷가, 인파로 북적이는 관광지역이었던, 거기에 모두가라는 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던가 보다. 서명으로 가득 채워진 용지를 들고 뿌듯한 마음으로, 구호내용을 담은 포즈를 만들어 멋지게 모듬별 사진찍기로 우리는 그날의 미션을 마쳤다.

이날, 서명을 받고 북한어린이돕기 모금을 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평화의식을 공유하고, 시민사회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일이 너무나 소중한 느낌을 느꼈다. 또한 모든 것을 경제논리, 정치논리로 풀고자 하는 이들에게 '북한 어린이에게 생명을' 이라는 순수하고도 절박한 마음으로 동참을 유도하는 일이 우리 Y가 실천해야 할 평화운동임을 새삼 깨닫기도 하였다.

일찍 나와서 순례길에 함께 오른 한 여성 의원이 적지 않은 돈을 분유통에 살짝 넣는 예쁜 모습에 우린 마음으로 감사하였고, 동전은 다 꺼내가라며 자동차 문을 활짝 열어준 장난꾸러기 같은 관광객이 있어 우린 활짝 웃기도 하였다.

우리의 평화순례는 이날의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 오늘날 세계가 평화의 위기에 직면해 있어 시민들의 평화적 각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인 만큼 우리 자신이 먼저 이전보다 더 평화로운 삶을 살아야 하고, 나아가 형제와 이웃, 사회, 그리고 국가와 세계로 이어가기 위해 우리 YWCA 평화순례는 계속되어야 한다. 



YWCA 직업훈련의 역사¹

글 | 차경애(연합회 회장)
정리 | 편집실

우리나라는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부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증대,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취업의식 향상, 핵가족화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가족부담의 감소 등과 같은 사회의 변화 때문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인해 여성의 삶이 보다 윤택해지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도 여성의 직업훈련은 중요하다 하겠다.

● 한국YWCA의 직업훈련 사업

① 창립 초창기부터 시작된 직업훈련 | 한국YWCA의 활동은 생활계몽운동과 일제 치하에서 나라를 살리는 일에 참여시키기 위한 사회계몽운동으로 시작되었다. Y는 초창기부터 직업기술과 생활기술교육을 하였다. 1925년에 경성Y(서울Y 전신)가 기청양재여숙(基淸洋裁女塾)을 설립, 양재강습과 양복실습반을 개설해 처음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하였다. Y연합회는 최용신을 수원 샘골에 파견, 농촌주부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1932년 5월 농촌주부학교 '천국학원'을 설립하고 18-40세의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바느질·요리법·세탁법·염색 등을 가르쳤다. Y는 6.25전쟁 후 1951년 피난지 부산동래에 '농예원'을 설립하고 양재, 타이프, 농예, 재봉, 축산, 원예, 수예, 편물, 가내수공업, 요리 등의 기술을 가르쳤다.

② 파출부 훈련사업 | 1960년대에는 소외된 빈민가정의 소녀와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기술교육을 실시하였다. 1961년 서울Y가 '소녀의 집'을 건립하고 직업교육을 실시, 광주Y는 1962년 보건사회부의 허가를 받아 윤락여성 선도사업으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계명여사'를 설립, 직업교육을 실시하였다. 1966년에는 서울Y가 '시간제 가정부'를 새로운 직종으로 개발, 지금의 파출부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연합회에서는 성인교육사업의 일환으로 파출부 교육교재를 발간하여 회원Y가 파출부 훈련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Y의 파출부 훈련사업은 여성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요구와 여성지

위 향상에 이바지한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되었다.

③ 근로여성 위한 교육 | Y는 여성들이 자기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동부의 보조로 1989-90년까지 노조간부, 회사간부 대상으로 근로여성 교육을 실시하였다.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인천, 울산Y에서는 생산직여성 828명을 훈련시켰다. 또한 급격한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로 여성노동자들이 임시직이나 시간제 노동자로 내몰리는 상황이 되자 여성근로자 향상 및 직업의 저변확대를 위해 1992년 7-11월까지 기혼여성 고용촉진 실태조사를 하고 기혼여성의 유희인력 고용촉진을 위한 장단기 직업훈련방안을 연구했다.

④ 새로운 직종-도배, 타일, 페인트 등 훈련 | Y에서는 여성들이 전통적인 여성직종에서만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직종이라 여기던 직업훈련에도 관심을 가져 1977년 9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마산Y가 도배훈련을 시작, 도배가 남성전용 직업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는데 공헌을 했다. 이어서 1977년 6월에 개관된 서울Y 독산동 근로여성회관에서 1978년 2월에도 배, 타일, 페인트 훈련을 시작하였다. 독산동 근로여성회관의 개관은 Y가 직업훈련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광주Y에서도 도배, 타일, 페인트 훈련을 시작하였다.

⑤ 국가기능자격시험 계기된 세탁사 훈련 | Y에서는 계속해서 세탁사, 커튼봉제사, 감귤전정 기술과 표구, 제도, 목공예, 보육교사, 속기사, 메이크업 교육 등으로 직업훈련을 확대시켜 나

갔다. 1989년에 시작한 세탁사훈련은 인력부족난으로 애스던 세탁업계에 획기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다. 이 교육이후 1992년 9월에 처음으로 세탁국가기능사자격 시험이 실시되었고 제1차 국가기능사 2급 자격시험에 22명이 응시, 19명이 합격하고 2차 시험에서는 11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⑥ 도우미 교육과 다양한 직종 개발 | 산모도우미는 현재의 간병사로 파출부 사업과 같이 오랜 기간 Y의 중요 직업훈련사업이 되었다. 간병사는 2주일 훈련을 받고 가정과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데 Y 간병인들은 정해진 복장을 입고 친절하게 환자들을 관리함으로써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2005년 5월에는 Y 간병사들이 제1회 간병사대회를 열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명감을 확인하였다. 집안청소와 이삿짐을 돕는 가정미화부도 100여명을 배출하였고 고학력 주부들의 유희노동력을 사회에 환원시키면서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시간제 주부아르바이트를 실시하여 72명을 기업체와 백화점의 시간제 취업에 알선했다. 이외에도 손해사정인, 판매사, 주택관리사, 산업위생사, 한복기능사 등의 직종을 개발하고 일정기간 훈련과 학습을 거쳐 자격증을 주어 일하게 하였다.

⑦ '일하는 여성의 집' 3개소 개관 | Y는 다양한 직업훈련을 통해 여성의 잠재된 인력을 개발하는 역할을 해왔기에 '93년 노동부로부터 '일하는 여성의 집'으로 명명한 여성직업훈련사업을 지원받아 서울, 광주, 부산Y에서 단기 직업훈련을 시작하게 되었다(2001년 5월 '여성인력개발센터 설립·운영규칙' 제정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명칭이 개정됨). '일하는 여성의 집'은 근로여성의 계속 취업과 기혼여성의 신규취업을 촉진함과 동시에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산업인력 부족을 완화하고 증대되는 여성의 경제활동 욕구를 충족시켜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였다.


⑧ 여성기능대회 개최 | 1994년 도배, 요리, 제과제빵, 커튼봉제 분야를 대상으로 제1회 여성기능대회를 개최하고 1995년 11월에는 정보화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의 컴퓨터 이용 및

정보능력 향상을 위한 제1회 주부 PC경진대회를 한국IBM 후원으로 열었다. 2000년 6월 27-7월 1일에는 급속히 발달한 인터넷 기술에 여대생의 튀는 아이디어를 결합시켜 창업을 꿈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길밖에서 길찾기' 프로그램을 실시해 창업동반자를 찾는 기회를 주었다.

⑨ 26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확장 운영 | 그 후 YWCA여성인력개발센터는 계속 확장돼 26개소가 되었다. 1993년에 시작한 3개 YWCA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08년에 센터 개관 15주년을 맞았고, 직업훈련 분야에서 전문기적 실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여성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한국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적합 직종을 2006년부터 개발하고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직업훈련을 선도하는 YWCA여성인력개발센터로!

현재 Y의 직종개발과 직업훈련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 Y직업훈련 사업은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함과 동시에 직종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하면서, 남성직종이라는 고정관념에 도전해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직종을 확대시켰다. 또한 임금도 남자가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 등에 힘써왔다.

Y직업훈련의 역사는 여성의 자아실현을 위한 역사라고 할 수 있겠다. 현재 YWCA는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중점 운동으로 펼치고 있다. 그러나 자아실현의 장인 돌봄노동이 노동으로써 완전한 권리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고령층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직종, 단순 직종'으로 여겼던 도우미 직종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돌봄노동의 일자리를 안정적인 고용형태를 가질 수 있도록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동시에 이를 계기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발전 방향 모색도 필요하다. 

1 이 글은 2010년도 YWCA여성인력개발센터 워크숍 자료집에서 요약하여 사용한 글임을 밝힙니다.

돌봄의 씨앗이 자라 아름답리 나무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2012 YWCA 돌보미대상 수상자, 30년을 돌아보며

오는 8월 18일 열리는 한국YWCA 90주년 전국회원대회에서 돌보미 시상식이 있다. 지난 30년 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돌봄의 가치를 실천해 온 돌보미대상 수상자 다섯 분의 소감을 들어보았다.



광주YWCA 조희숙 ●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조금씩 일을 줄여볼까 생각하던 차에 이런 상을 받게 되니 조금 민망하기도 하다. 지금은 서른 중반이 된 큰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했을 때부터 돌보미 일을 했었다.

일을 시작하던 그 당시에는, 매일 아침 YWCA에 직접 들러서 일을 받아야 했다. 버스를 타고 YWCA에 도착해 주소지가 적힌 메모지 하나를 받고, 전화 한통을 하고 나서는 다시 버스를 타고 물어 물어 그날 일을 하게 될 집을 찾아갔다. 굶이 다 닳아진 신발을 친구삼아 눈이 오면 눈 맞으며, 비가 오면 비 맞으며, 한 여름엔 땀병에 땀을 비 오듯 흘리면서 겨우 찾은 남의 집 벨을 어색함과 함께 누른다. 그리고 닦아도 닦아도 끝나지 않는 넓은 거실을 치우고, 쌓여있는 설거지를 끝내고, 각종 빨래와 식사준비, 때론 인간적인 무시 등을 이겨내며 하루 일을 끝내고 나면, 내 손에 쥐어지는 하루벌이는 5천원이었다. 하루 일당이 5천원이었을 때, 하루 5천원 벌어서 어디에 쓸까 하겠지만 안먹고 안쓰며 아끼고 모아서 오늘 이날까지 나의 가정을 지켰다. 여기 동료들 역시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는 분들이기 보다는, 가족을 위해 한 푼이라도 보태려는 마음에 설거지물에 손을 담그고, 빗자루를 들고, 걸레를 잡는 거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들 또한 그 수고와 땀방울이 나중엔 큰 보람으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 보람이 꼭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고 해도 본인들이 지키고 싶었던 것들을 끝까지 책임 있게 지켜낸다면, 그것이 바로 큰 보람이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만, 너무 가족들 위해서만 일하지 말고, 본인들 건강도 생각하면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본인도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다.



부산YWCA 김종순 ● 내가 대상을 받을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다. YWCA에 들어오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한다. 처음에 일을 할 때에는 어린나이에 시집가서 제대로 일을 하지도 못할 때였다. 남편이 공장을 경영하면서 여유롭게 살던 중 일하던 직원이 담뱃불을 버리면서 공장에서 불이 나게 되었고 아무것도 남은 것 없이 빗까지 지게 되었다. 집안일도 잘하지 못하는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 부끄럽기도 하고 남의 집에 가서 가사돌보미로 활동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고 울기도 많이 하였다. 남편은 충격을 받아서 몸이 안 좋아졌고 당뇨병까지 오게 되었으며, 결국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다. 자식 세 명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나의 몫이 되었다. 남편이 떠나고 나니 앞이 캄캄했다. 그래도 자식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찾던 중 우연히 YWCA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준다고 해서 찾아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나를 보더니 몸이 약하다고 일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고 며칠 후 다시 YWCA를 찾아가서 열심히 할 수 있다고 했더니 받아주었고, 삼남매를 잘 키울 수 있었다. 자식들이 반듯하게 잘 커주어서 항상 감사하다. 또 YWCA가 나에게 정말 큰 버팀목이 되었으며, 일을 하러 갈 때에는 '구

인자 집이 내 집이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다. 나는 현재 한 집에서 30년간 일을 하고 있다. 그분들에게도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YWCA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서울YWCA 김순자 ● 먼저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981년 1월, 처음 돌보미를 시작해서 벌써 30여 년이 흘렀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세 번이나 변한 세월이 되었다. 나는 YWCA에 들어와서 세 자녀를 키우고 지금은 남편과 더불어 인생을 즐겁게 보내고 있다. 내 인생의 절반을 YWCA에서 보냈지만 나에게서는 너무나 보람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사실 처음 YWCA에 들어와 '두 달만 일하고 그만둬야지' 했던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느덧 내 인생의 크나큰 즐거움과 기쁨으로 자리잡았다. 나는 지금도 이 일을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기쁨이요, 내가 살아가는 데에 활력소가 되고, 삶이 흐트러지지 않는 원동력이라 생각한다. 지금도 서울YWCA 정회주차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선생님들의 추천으로 이 자리에 있도록 해주어 더욱 감사드립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가 맡은 일을 해 나갈 것이다.



서울YWCA 김호수 ● 1982년 서울YWCA에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 당시 돌보미 100명을 뽑는데 1,000명이 와서 면접을 보았다. 면접을 보고 뽑히는 데까지도 힘들었다. 그러나 그 때 남편은 사우디에 있었고 아이들 세 명을 키워야 했다. 그런데 돌보미 활동은 크나큰 힘이 되었다. 물론 좋은 일도 많았지만, 어렵고 까다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힘들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Y는 나에게 큰 버팀목이 되었다. 지금까지를 되돌아보면 Y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재교육을 통해 함께한 동료들이 있었기에 30년을 지내올 수 있었던 것 같다. 30년 세월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으나, 88올림픽 당시 선수촌에서 자원봉사 했던 일은 정말 감동적이었다. 그런 국가 행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Y에 있는 우리들만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힘들 일도 있었다. 한 번은 일하는 곳에 강도가 들어와 무기로 협박했다. 그 집의 아이들을 꼭 끌어안고 목숨만을 살려달라고 해서 아이들을 구하고 어려움을 극복한 일도 기억이 난다. 그때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구해준 일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다고 했는지... 건강이 안 좋아 힘들 때도 있었는데 역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있었고 Y와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셨기에 힘든 시기를 지나 30년을 일하고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자식들도 시집 장가다 갔고 남편과 또 동료들과 여행도 가면서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물론 일은 많이는 못하지만, 아직도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하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Y를 만나서 그 시기를 극복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길 기도하겠다. 그리고 30년 상을 받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



서울YWCA 박기애 ●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 고 할 만큼 누군가와 만남은 중요하다. 나에게서는 하나님과 YWCA를 만난 것이 인생 최대의 축복이다. 왜냐하면 사랑과 봉사로 심은 씨앗을 보람과 감사와 기쁨의 열매로 거두게 되었으니 말이다. 아무것도 모르던 평범한 가정주부가 서울YWCA의 교육을 받고 간병사가 되어 떨리는 가슴을 안고 첫 환자를 만나러 병원 가던 때를 잊을 수가 없다. 지난 30년을 돌아보면, 아픈 이들의 손과 발이 되어, 때로는 그들을 부모로 때로는 형제로 여기며 최선을 다했다. 서른 살의 젊은 엄마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간병사로 성실히 일하며 다섯 남매를 키웠고, 아픈 환자가 환한 얼굴로 퇴원하며 감사인사를 할 때 느끼는 보람으로, 나는 어느덧 칠순을 넘기게 되었다. 지금도 YWCA 간병사 박기애를 찾는 환자들과 보호자가 있고, 이 나이에도 일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큰 상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서울YWCA 1기 간병돌보미로 누리는 행운으로 알고 있다. 지금도 환자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우리 서울YWCA 모든 간병 후배 회원들에게 영광을 돌린다. 

수 있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힘들 일도 있었다. 한 번은 일하는 곳에 강도가 들어와 무기로 협박했다. 그 집의 아이들을 꼭 끌어안고 목숨만을 살려달라고 해서 아이들을 구하고 어려움을 극복한 일도 기억이 난다. 그때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구해준 일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다고 했는지... 건강이 안 좋아 힘들 때도 있었는데 역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있었고 Y와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셨기에 힘든 시기를 지나 30년을 일하고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자식들도 시집 장가다 갔고 남편과 또 동료들과 여행도 가면서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물론 일은 많이는 못하지만, 아직도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하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Y를 만나서 그 시기를 극복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길 기도하겠다. 그리고 30년 상을 받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

기독교 여성이 제안하는 여성정책: '성평등 국가'에 대한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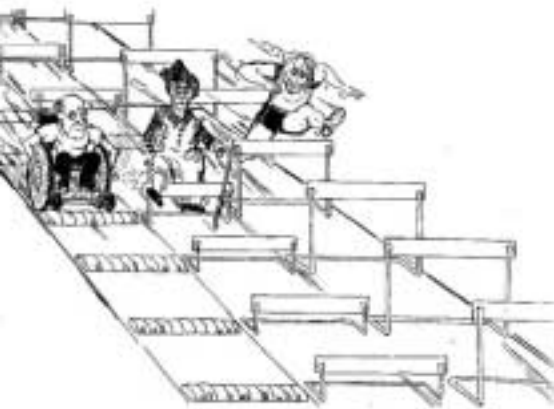
글 | 김은경
한국 YWCA 연합회 실행위원, 아카데미 팀장,
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 국민대 정치대학원 초빙교수

지난 5월 30일 개원한 19대 국회와 오는 12월 선거를 통해 선출될 대통령은 할 일이 아주 많다. 새삼스럽게 무슨 그런 말을... 그렇다. 매번 반복되는 일기에 결코 새로운 일은 아니겠으나, 이루어졌으면 하는 일들이 많은 만큼 그래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할 수 밖에 없다.

인간개발지수 15위, GDP 조 5561억 달러, 세계12위 국민소득 2만 5천129달러를 기록한 전 세계에서 7번째로 20-50 그룹에 속한 나라. 각종 지표를 통해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음을 자랑할 만한 나라.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전히 불평등한 나라이다. 남득되지 않는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하는 미완성의 민주주의 국가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밝힌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 값은 62,6 (완전불평등 0,0 완전평등 100,0)으로, 의사결정 및 안전 분야에서 가장 평등하지 못한 나라이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하는 성평등지수 또한 분석 대상 135개국 가운데 107위를 기록하는 후진국이다. 세계은행(WB)이 분류한 '고소득 국가' 45개국 가운데 한국은 41위이다. 건강 부문에서는 78위, 정치 권한 부문에서는 90위, 교육적 성과 부문에서 97위를 기록하였으며, 경제활동 및 기회 부문에서는 117위를 기록, 경제 분야의 성평등이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분석됐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바랄 수 있는 평등은 결코 산술적이고 기계적인 평등은 아닐 것이며, 오히려 그것은 진정 남득이 되는, 즉 설명이 가능한, 이해할 수 있는 불평등일 것이다. 롤즈의 정의론을 빌리지 않고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는 삶을 원한다. 각자의 재능과 선택이 전제되어 이루어지는, 자유의지의 결과물로서의 삶! 기회와 조건의 평등을 넘어 결과의 평등으로까지 연결되는 자유로운 삶!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대한민국이기를 바란다. 이른바 '성평등한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인 것이다.

성평등한 국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는 '과정'에 관한 것이며, 지도자들의 의지로 인해 충분히 실현가능한 '선택'의 영역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되는 선거를 눈앞에 두고 공동체를 디자인할 권한을 가지게 될 지도자들에게 성평등 국가에 대한 비전과 이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프랑스처럼 남녀동수 내각을 구성하여 국정을 운영



● 에큐메니컬 행동의 날 개회식 예배 사회 차경애 연합회 회장



● 여성분과에서 발제를 맡은 김은경 연합회 실행위원(가운데)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 것이고, 우리도 스웨덴처럼 공공분야 뿐 아니라 사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을 40%까지 강제 할당하는 제도를 만들고 싶고, 여성참여가 높은 대부분의 나라들처럼 여성과 정치신인의 정치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폐지하고, 비례의석을 50%로 늘린 가운데 정당명부식 선거제도를 도입하여 민주적 대표성제도를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싶은 것이다. 더 이상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선택받은 성별로 인해 차별을 당하는 세상에는 살고 싶지 않다.

이와 같은 바람들이 최소한 Y공동체 구성원들에게만은 결코 낮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YWCA의 지난 90년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남녀가 함께 만드는 정의와 평화의 세상을 향한 역사였기 때문이다.

“지난 90년의 역사동안 각 시대를 앞서가며 사회의 어두운 곳을 비춰 오신 선배들의 기도와 헌신은 한국 사회의 큰 변화를 갖게 했습니다. 농촌계몽과 가족법 개정운동, 여성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운동은 생명을 지키는 지역의 공동체운동으로 이어졌고,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을 찾아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길을 함께 만들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이제 한국YWCA는 100주년을 향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바람이 온 세상을 맑고 밝게 바꾸는 꿈, 북한의 자매들과 함께 웃음을 나누는 꿈, 남녀의 구분이 필요 없는 진정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는 꿈을 꾸며 한걸음씩 나아가고자 합니다.”
한국YWCA연합회 회장 차경애

“한국YWCA는 90년의 역사속에서 여성의 인권과 복지, 사회적 정의와 평화, 생명의 존중을 위해 일함으로써 생명과 희망의 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YWCA는 새로운 시대적 요청 앞에 섰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인간답게 사는 것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것이기에, 혹시 여기에서 소외되는 우리 이웃들은 없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 유성희¹⁾

우리는 매일 매일 간절함으로 기도한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그러나 기도만으로 산을 옮길 수는 없다. 산을 옮기려면 불도저가 필요하다. 에큐메니컬 행동의 날에 기독교 여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차기 정부에 제안할 여성정책과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아쉬운 자리였다. 준비도 소홀했고, 결과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데도 성공적이지 못했다. 정리되지 않은 의제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결국 시간 부족으로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각자의 몫으로 되가져가야 할 대목이다.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현실로 옮길 지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철저한 준비와 계획만이 기독교 여성들이 원하는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지름길임을 잊지 말자.

1) 인사말, 한국YWCA 홈페이지 www.ywca.or.kr

키우자 와이다운리더 - 키다리 입학식 하는 날

글 | 고은희(청년리더십팀)

2012년 한국YWCA 중점운동인 '키다리학교' 입학식이 7월 20일(금)~21일(토) 이틀간 1박 2일의 여정으로 버들캠핑장에서 진행되었다. 이 날은 고양, 서울, 안양, 청주의 네 지역에서 모인 청소년 50여 명과 네 개 지역 및 연합회 실무자와 자원지도자들이 키다리학교의 시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였다.

이번 입학식은 단순히 한 자리에 모여 축하하는 시간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번 입학식은 'Y다운 리더십 트레이닝'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 초부터 총 7번 진행된 키다리학교 TF팀 회의를 통해 그동안 TF팀 멤버들은 키다리학교를 위한 깊은 논의와 협의의 시간을 가졌다. 교육 관련 서적을 읽고 토론하고, 직접 대안학교를 탐방하여 학교의 가치와 운영 사정 등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우리는 특정 주제를 놓고 끊임없는 논의와 협의의 시간을 거쳤는데,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토요학교의 모습, 회원 Y별 프로그램 구성, 키다리학교 운영방식 등이 그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Y다운 리더'란 누구인지, YWCA 리더십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논의 작업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 졌다.

근 7개월간의 작업을 통해 우리는 Y다운 리더십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첫 번째 '비전 리더십'. '비전 리더십'이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달란트를 바탕으로 하여 분명한 비전을 삼고 이를 위해 나아가는 리더를 뜻한다. 두 번째 '팀 리더십'. '팀 리더십'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잘 이해하고 공동체적 협력 능력을 갖춘 리더십을 뜻한다. 우리 Y의 역사를 살펴 봤을 때도, 우리의 지도자들은 혼자서 일하지 않으셨다. 항상 팀을 이루어 일하면서 저마다의 달란트를 심부름 활용하여 일하였다. 우리가 지향하는 키다리 청년상, 즉 Y다운 리더란 이런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천 리더십'. '실천 리더십'이란 자신 개인의 문제에만 집중하지 않고 지

역사회와 세계이슈에 관심을 기울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리더십을 뜻한다. 이러한 리더십은 90년 전 한국YWCA가 세워졌을 당시, 사회의 여성의 문제를 인식한 그 한 사람의 '실천'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번 키다리학교 입학식은 이러한 세 가지 리더십에 대해 배우고 피부로 이해하는 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졌다.

네 개 지역의 회장님과 사무총장님, 또 실무자와 여러 자원지도자, 청소년, 어린이 회원 등 다양한 Y가족들의 환영 메시지를 시작으로 환영식이 시작되었다. 특별히 플라로이드 카메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를 담아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에는 '키다리학교 청소년 친구들이 다르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했다. 아주 짧은 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친구들의 능력에 놀라고 말았다. '말하고 싶다.', '-3', '소나무처럼 한결같은 사람' 등 제목에서도 그들의 풍부한 감수성과 표현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환영식을 마치고 '우리는 키다리!' 시간에는 학교에 대한 고민을 통해 키다리 청소년이 바라는 학교상을 노래로 만들어 보는 워크숍 시간을 가졌다. 이매진 피스 소속인 정효민 선생님의 지도 아래 팀별로 학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 불만을 강력히 표출하는 모습, 또 그들이 원하는 학교상을 가



'키우자 와이다운 리더' 와이다운 리더 한번 키워보겠다고, 와이다운 리더로 한번 자라보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4개 지역의 청소년과 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키다리학교의 시작을 올리는 소리가 버들캠핑장에 만난 가운데, 그들의 기대감은 쪽빛으로 옅토고 있었다.



사로 만들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키다리학교 청소년들의 잠재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고, 그들이 그리는 학교상을 함께 그릴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다.

수리대신 사랑으로!
수직대신 수평으로!
성적대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바로 용감한 키다리 (우리의 용감함을 보여주지!)
학교는 말하지 대학 못가면 안되애애애~
(대학가면 다되는 세상이야! 이게 바로 우리교육 현실이야!)
우리는 말하지 대학은 다가 아나아아아~
(노력하면 다되는 세상이야!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야!)
수리대신 사랑으로!
수직대신 수평으로!
성적대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바로 용감한 키다리!

- '우리는 키다리!' 4조 노래가사 中 -

'키다리 마스터 셰프' 시간에는 공동체 놀이를 통해 조별로 얻은 재료를 가지고 직접 요리사가 되어 팀별로 협력하여 요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키다리'를 주제로 요리를 만들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협력, 소통, 발전 등을 모티브로 하여 요리를 만들어 발표하여 앞으로 키다리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설명해주었다. 물론 이 요리는 참가

자 전원의 뱃속으로 들어가 우리를 풍족하게 해주었다.

'리더 포스 뽑어내기 I' 과 '리더 포스 뽑어내기 II' 시간에는 키다리학교 TF팀 김은경 책임위원의 진행 아래 비전리더십, 팀리더십, 실천리더십을 직접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워크숍 시간을 가졌고, 회원 Y별로 앞으로의 키다리학교 활동 계획을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 Y는 '인권'을 주제로 그 중에서도 새터민 청소년과의 만남과 연구를 중심으로 올해를 보내겠다고 했다. 고양 Y는 '평화여행'을 주제로 DMZ 여행을 기획했는데, 특별히 이 팀은 여행준비팀, 축제기획팀, 미디어팀으로 나누어 활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안양 Y는 청소년 각자의 재능을 발견하여 지역사회에 재능을 기부하는 재능 기부활동, 청주 Y는 평화여행가임영신씨와의 만남, 예술공장 두레 견학 등을 포함하는 인문학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회원 Y의 다양한 계획을 듣고 서로의 기대하는 바를 제안하였고, 합동수업을 할 것을 제안한 친구도 있었다. 그렇게 기대감과 즐거움 속에 함께한 이틀간의 키다리 입학식을 기리는 '파송식'의 순서가 남아 있었다. '파송식' 때는 오늘을 기념으로 우리 키다리학교 청소년과 함께 자라날 키다리 나무를 심었고, 자신의 염원을 담아 한 사람씩 나무에 물을 주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한 모금의 물이 키다리 나무를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고, 또 이 날을 기억하며 키다리학교 청소년과 지도자 모두가 푸르르게 자라나 나와 지역사회, 또 세상을 바꾸는 Y다운 리더가 되기를 꿈꿔 본다.



기부천사, 리치몬드 제과 명장 권상범

정리 | 편집실

지난 7월 26일, 대한민국 제과제빵 명장 8명 중에 한 분이자 YWCA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운동을 지원, 한국YWCA 90주년 전국회원대회 4,500명 회원들을 위해 손수 만든 빵을 기증해주신 리치몬드 제과점 권상범 선생님을 만났다.

Q 선생님께서 여성단체인 YWCA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YWCA를 알고는 있었는데, 친구(하기성 선생님, YWCA 베트남결혼이주여성운동 후원자)의 YWCA 베트남결혼이주여성운동을 후원해보자는 제안으로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다.

Q 선생님이 알고 계신 YWCA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셨나요?

YWCA는 상당한 전통도 있고, 어떤 시민단체보다 모범적으로 사회사업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다. 좋은 일을 하는 데에는 마음이 중요한데, YWCA는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 90년이 될 수 있었을 것 같다.

Q YWCA 베트남결혼이주여성운동을 후원해주고계신데, 베트남과 관련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베트남이주여성과 가족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위에

서 말한 친구와 함께 후원을 시작하면서 알게 되었다. 월남전과 통일 이후 베트남을 몇 번 방문했었는데, 베트남에 갈 때마다 베트남이라는 국가가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느끼게 되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부지런함과 인성이 너무 좋았고, 국가적으로도 자원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에 대한 애착이 크다.

Q 선생님께서 만드시는 빵 속에 선생님의 모든 인생이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진데, YWCA 전국회원대회에 흔쾌히 빵을 기증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평생을 빵과 함께 해 오신 선생님께 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나에게 빵은 사랑스러움 그 자체이다. 언제 보아도 사랑스럽고 나를 보고 방긋방긋 웃는 것 같다. 심성이 좋지 않구나라고 느껴질 때는 들어보고 맛도 보고 그렇게 된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조물주가 나를 빵을 만드는 쪽으로 가라는 생각을 넣어 준 것 같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 일을 해보고 잘 안되면 다른 일을 해보자는 생각이 아니었다. 빵을 만드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고 더 좋은 기술을 배워야겠다는 생각만 있었다.

Q 선생님의 빵은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리치몬드는 장애인 시설,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어린이들이 있는 곳 등 사랑이 필요한 곳에 빵을 보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원생들이 빵 만들기를 배우면서 빵을 만드는데, 일본 같은 곳에서는 시중가의 절반 정도로 판다. 그런데 나는 학원생들에게 1/3정도는 가져가더라도 나머지는 두고 갈 수 있도록 한다. 마포구청에서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곳을 연결해준다. 그렇게 해서 연결된 곳에서 제과점으로 와서 빵을 가져간다. 요즘 백화점에서는 마감시간이 되면 빵을 세일해서 판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는, 얼마나 소중하게 정성들여 만든 빵인데, 그렇게 함부로 하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정성껏 만든 빵을 세일가예라도 팔아 이윤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치에 맞는 곳에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날 다 판매되지 못한 빵을 사회복지회관이나 관련 시설에 보낸다.


Q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나눔'에 대한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나누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일이다. 그리고 인간 사이의 정(情)이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 그 자체다. 또한 상대방이 어려우면 돕고 싶다. 다섯 살 때부터 종조부에게 한문을 배웠는데, '믿을 신(信)', '이로울 이(利)'를 마음에 새기게 되었다. 사람들을 믿고, 또 내가 아는 사람들이 이로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신이'를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게 보인다. 요즘은 '기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나는 기부보다 '나눔'이라는 말을 더 좋아한다. 기부와 나눔의 차이는 '진정성',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Q 선생님께서는 열아홉 살 때 상경하셔서 어깨 너머로 제빵 기술을 익히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40년간 한 번도 결근이나 지각을 하신 적이 없다고 들었는데, 그러한 피나는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에 제과제빵의 명장이 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을 명장으로 우뚝 세운 선생님의 신조가 궁금합니다.

신조라기보다는 마음과 노력이었던 것 같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절대 좌절과 포기는 없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그렇게 쉬지 않고, 목표한 것만 생각하며 노력했다. 기술이라는 것도 노력하면 진화하는 것이다. 고객들에게 사랑받는 빵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니 길이 생기더라.

Q 마지막으로, 한국YWCA 90주년 전국회원대회를 맞이하여, YWCA 회원들과 YWCA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덜 쓰고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보면 방법이 나온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방법을 강구하고 찾아가다보면 길이 나온다. YWCA는 이미 잘 하고 있는 대단한 단체이다. YWCA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사회와 다 같이 나누며, 모두가 잘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리고 질문하라!

글 | 김은주(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아마도 전 세계에서 우리와 동병상련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국가가 있다면 아마도 독일일 것이다. 분단의 원인이야 달랐지만 어찌되었던 하나의 민족이 분단으로 인해 국민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아픔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일독일은 통일 후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모습을 예측해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학습할 수 있는 통일예비학교와도 같은 곳이다. 지금 통일독일이 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미래의 통일한국을 만들기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탈북여성들과 함께 독일통일연수를 다녀왔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떠난 독일통일연수는 독일통일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남북한 여성들이 모여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적이 있었다. 60여 년의 세월이 바뀌어 놓은 우리들의 모습들을 동서독 여성들의 삶의 모습에 비추어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고 그들은 우리와 무엇이 다르기에 통일을 먼저 기록하게 되었는가를 느끼게 하고 싶었다.

탈북여성들의 눈에 비친 동독은 북한과 너무나 달랐다. 비록 동독주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했던 동독의 슈타지나 북한의 보위부가 주민을 감시하는 일들은 다르지 않았으나 종교의 자유가 있었다는 것에 매우 놀라워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안에서 생각의 자유, 영혼의 자유를 느낄 수 있었고 그곳이 바로 베를린장벽의 붕괴와 통일독일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것을 부러워했다. 노골적인 검열이 일상화되어 있는 북한과 달리 서신검열을 해놓고도 안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가짜 우편 직인, 편지봉투 뜯는 기계를 보며 '그래도 동독정권은 국민의 눈치를 봤나보네'라며 냉소를 보였다.

남북한 여성들이 던진 질문이 달랐다. 탈북여성들은 통일 후 동독주민들이 정말 행복한지, 즉 통일하기를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하는지를 구동독주민들의 입을 통해 직접 듣기를 희망했고, 20여 년이 지난 현재 구동독시절을 그리워하는 오스탈

기(ost(독일어로 동쪽)와 nostalgia(향수) 현상이 점차 커져간다는 사실에 독일 사람들보다도 더 걱정스러워했다. 아니 그 시절이 무엇이 좋다고 그 시절을 그리워하냐며 혀를 찼다. 남한여성들은 독일통일을 바라보는 탈북여성들의 시선이 다르다는 사실에 흥미로워했고 통일 후 구 동독사회에 나타난 사회경제적 문제와 변화들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가고 있는지, 그 대안은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등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다.

근처에 북한대사관이 있다는 말에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디' 하며 다가가는 남한 여성들에 반해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돌아서서 탈북여성들, 서독으로 탈출하다 동독군인들의 총에 맞아 죽은 동독주민을 위해 서독군인이 세워두었다는 하얀 십자가를 보며 압록강과 두만강에는 수 천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야 할 거라며 하염없이 바라보던 그녀들, 그리고 통일이 빨리 되어 북에 두고 온 가족을 만나라는 동독할머니의 말 한마디에 금새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그녀들, 아마도 분단으로 가장 고통받는 이들이 아닌가 싶다.

어찌 보면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서로 다른 체제와 문화속에서 성년이 되도록 살다운 탈북여성들이기에 우리의 시선과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마 동서독주민들도 그랬을 것이다. 서로 다른 체제하


에서 40여 년을 살아온 동독과 서독의 주민들이 바로 그 달랐다는 이유로 서로 불편해하고 불안해했을 것이다.

우리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다름에 의한 불편함과 불안감이 사회문제나 갈등으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남한사회에 들어와 사는 탈북자들을 통해 그 차이와 다름을 미리 가능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통일한국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탈북여성들에게 제대로 된 역할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탈북여성들이 독일통일과정을 보면서 느낀 불안감과 문제점은 바로 통일 후 북한주민들이 느끼고 제기하게 될 불안감과 문제점일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민주주의의 확장에서 찾았다. 독일연방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청산재단을 설립하여 구동독의 독재가 국민들에게서 잊혀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희생자지원사업, 대국민교육, 자료집편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구 동독의 집권당이었던 사회주의통일당이 저질렀던 40년의 독재역사를 기록하고 상기시켜 통일이 가져다준 자유와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잊지 않도록 하는 활동이 있었다.

사람들은 나쁜 기억을 빨리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기억하고 싶어 하고, 또 사람들은 과거의 일보다 현재의 문제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더 중요하게 여긴다. 과거에 겪었던 자유의 결

핍 보다는도 오늘 내가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망각이라는 괴물과의 끈질긴 싸움이 필요한 것이다.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일은 지루하리만큼 긴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독재의 역사가 옛것에 대한 향수에 묻혀 망각되지 않도록 그 시대의 참혹함을 기억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했던 사람들의 절규와 소망을 오늘을 사는 독일사람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었다.

라이프찌히의 니콜라이 교회벽에 붙어있던 베를린장벽 붕괴 20주년 기념행사포스터에서 발견했던 세 단어, "기억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질문하라(erinnern, danken, fragen)"가 아직도 길게 여운이 남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동독의 독재정권하에서 자행되었던 참상들을 기억하고, 자유를 위해 투쟁하였던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통일정부를 수립하던 그날을 기억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에 감사하라(danken), 그리고 감사하고 기억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독재의 역사를 망각하는 이들에게 왜 그들이 자유와 민주주의와 통일의 가치를 걸고 거리로 나섰던가를 질문하라(fragen)는 것이 아닐까? 과연 그 시대가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되어 향수의 대상이 되어도 되는 그런 세상이었는지를 말이다. 

북한이탈주민과 평화, 어떻게 이를 것인가?

정리 | 연합회 평화나눔팀




지난 7월 19일 제3차 YWCA 평화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전국 20여개 회원Y 평화포럼 대표단 30여명과, 회원Y 전국회원대회 준비단 20여명이 참석하였다. 제3차 평화포럼은 '북한이탈주민과 평화, 어떻게 이를 것인가?' 라는 주제로, 북한이탈여성에게서 직접 강의를 듣고,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논의하는 장이 되었다. 이날 사회는 김은주 위원(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연합회 평화나눔팀 위원)이 진행하였다.

첫 발제는 현인에 NK지식인연대 부대표의 발제로 이루어졌다. 현인에 부대표는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문제에 근거한 정책 및 활동 제안'이라는 주제로, 본인이 2008년 북한을 이 탈해 남한에 정착하기까지의 경험을 나누었다. 또한 통계와 수치를 기반으로 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현 부대표는 실업문제로 귀결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파악하였고, 그와 더불어 북한체제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이들을 위한 상담과 심리치료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현 부대표는 이어, 남한에 북한이탈주민 중 70%에 육박하는 여성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없음을 들며, YWCA 등 시민사회단체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정부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활동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발제는 현재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에 재학 중인 이미연씨의 '북한이탈청년여성이 겪는 남한 사회 적응의 어려움과 제안'이라는 내용으로 이어졌다. 북한에서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미연씨는 북한에서의 생생한 경험과 더불어, 젊은 세대로서 북한에서 만난 한류 드라마의 이야기 등을 생동감 넘치게 전달하여 참가자들에게 북한사회를 잘 보여 주었다. 또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여러 다양한 경험과 아픔을 가진 북한이탈여성들이 남한 사회에서 정착할 때 겪는 어려움을 들어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이미연씨의 발제를 통해, 북한이탈여성 가운데 특히 2~30대 젊은 여성들이 겪는 아픔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이미연씨는 북한이탈여성의 문제를 크게 건강상의 어려움, 경제적 문제, 자녀양육의 문제, 학업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꼽고, 그 해결

을 위해 취업지원정책, 건강지원정책, 보육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남한여성과 북한여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YWCA에 제안하였다.

두 발제자의 진솔하고 생생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강의를 들은 후 여러 가지 질의응답시간이 이어졌으며, 뜨거운 가슴으로 지역별 토론 및 발표가 이어졌다. 

제3차 평화포럼 지역별 토의 결과 우리 지역의 YWCA 북한이탈주민 평화운동 제안

경기 지역

- 산후도우미 바우처 제도 정보 제공 (북한이탈여성이 지원대상이 아닐 경우 YWCA가 지원)
- 지역별 정책 제안 가능한 포럼 구성
- 남북한 여성이 함께 하는 문화프로그램 개발

북부 지역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과 남한시민의식교육 병행
- 유관기관과 지속적 간담회
- Y-틴 학생들과 함께 멘토리대 만들어 보내기 운동 활성화

중부·동부 지역

- 북한이탈여성과 남한여성이 함께 멘토멘티 서로돕기 프로그램
- 남한시민대상 북한이탈주민 이해교육 필요 (북한이탈주민과 전문가 한 팀으로 구성)
- 북한이탈주민의 문화 인정하고 알릴 수 있는 장 마련 (예 : 북한음식자랑, 장기자랑 등)

서부 지역

- 북한YWCA 재건과 통일을 위해, 개별지역 자매결연 맺음
- 대학생 대상으로 남북대학생 연결모임
-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전개

고리 핵발전소 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한국YWCA 성명서

고리 핵발전소 1호기 폐쇄는 생명을 지키는 시작이다

고리 핵발전소 1호기는 1978년부터 가동해 온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노후 원전이다. 설계수명 30년이 훨씬 넘었지만 2007년 10년 연장운전 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크고 작은 사고들을 거듭하면서 위태롭게 운영해왔다. 지난해 4월에는 차단기 과열 파손 사고가 있었으며, 올 2월에는 12분 동안이나 전원공급이 완전 중단되는 블랙아웃 사태를 빚어 충격을 안겨주었다.

만은 국민들이 수명이 다한 고리 핵발전소 1호기의 위험성으로 폐쇄 요구를 하였으나,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몇 달에 걸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동원하여 재가동의 수순을 밟아왔고 결국 오늘 아침 재가동을 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는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염원과 소망을 저버리는 처사이며, 생명을 담보로 하여 요행과 이익을 바라는 어리석은 행위이다.

핵발전은 결코 완벽하게 관리할 수 없으며, 작은 실수로도 엄청난 재해를 가져올 수 있다. 1979년 미국의 쓰리마일 사고, 1986년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사고, 그리고 작년 3.11 일본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확증된 핵발전소의 위험성은, 핵발전소 밀집도가 가장 높은 우리 땅 한반도가 결코 이 위험에서 안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한국YWCA는 핵 없는 세상을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창조질서 보전을 실현하는 일임을 믿는다. 이에 한국YWCA는 인류와 지구 생태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핵에 반대하며, 고리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노후한 핵발전소를 폐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와 동시에, 올바른 안전 평가를 거치지 못한 채 건설을 계획 중인 신고리 핵발전소 5, 6호기의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2. 7. 4.

한국YWCA연합회

“결혼식 말고 결혼해요!” 사례 쓰기 공모



가족가치 확산, 일·가정 양립, 양성평등, 허례허식 타파한 아름다운 결혼 문화 조성하기! 사랑과 배려로 준비된 행복한 결혼 이야기를 한국YWCA연합회로 보내주세요~

- **공모대상** | 기혼자, 미혼자 (누구나 가능)
- **공모내용** | 가족가치 확산, 일·가정 양립, 양성평등, 허례허식 타파에 해당하는 결혼(결혼식)을 직접 경험하거나 참여한 사례(미혼일 경우, 상기 내용의 결혼을 계획하는 사례도 가능)
- **공모형식** | 자유 산문 형식
분량 - A4 3장 이내 (한글파일, 신명조 13Point, 줄간격 160%)
- **공모마감** | 9월 19일까지
- **시상내용** | 대상(1명) -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
우수상(2명) - 각 50만원 상당의 상품권
장려상(3명) - 각 30만원 상당의 상품권

● **공모방법** | 한국YWCA연합회 홈페이지(www.ywca.or.kr)에서 쓰기공모전 참가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작성 후 수기와 함께 E-mail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접수된 원고의 저작권은 여성가족부와 한국YWCA연합회에 귀속됩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 3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합니다.
- 공모전에서 수상된 수기는 사례집으로 발간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 수기집 제작 시 관련 사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한국YWCA연합회 돌봄과 살림팀(www.ywca.or.kr) ☎02.774.9705

● **주관** | 한국YWCA연합회

● **후원** | 여성가족부

YWBS 4기 방송 시작 알림

평화의 올림, 그 이상!

한국YWCA 인터넷 방송국 YWBS 4기

- **방송 기간** | 2012. 7. 21 ~ 12. 23
- **방송 시간** |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 ~ 4시
- **방송 틀기** | www.afreeca.com/ywca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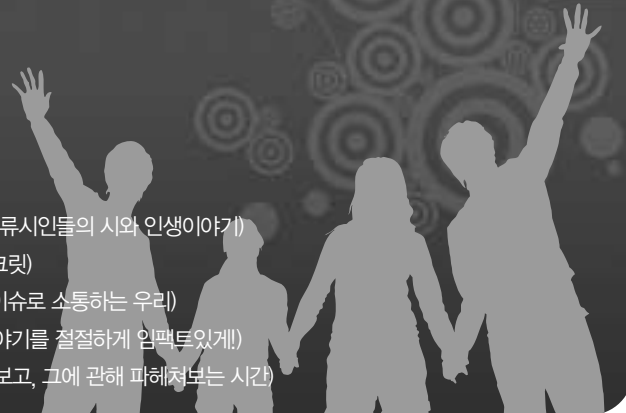
월요일: 이민성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시시한 이야기' (한국 여류시인들의 시와 인생이야기)

화요일: 최유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날·씨' (날 사로잡는 씨크릿)

수요일: 이윤아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시·소' (시사와 사회적 이슈로 소통하는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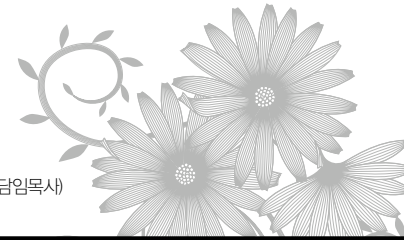
목요일: 박지희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오·이·절·임' (OST로 이야기를 절절하게 인팩트있게!)

금요일: 박지연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핫도그' (핫이슈도 알아보고, 그에 관해 피해처보는 시간)



감사의 영성

마태복음 14:15-21



글 | 이천진(공정교회 담임목사)

구약성서학자인 헨슨(P.D.Hanson)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살롬이라는 말은 카오스가 침입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며, 생명을 축소시키거나 파괴시키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 상태를 말한다.” 살롬의 반대는 전쟁이 아니라, 카오스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하셨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 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요14:27) 예수님은 어떻게 평화를 이루셨는가?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아와 이르되 이 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마14:15) 사건의 장소는 ‘빈 들’ 이고 시간은 ‘저녁때’ 이다. 과제는 예수님을 따라 온 오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식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빈들에 먹을 것이 없었다. 이때 제자들은 매우 상식적인 판단을 했다. 각자 마을로 가서 저녁을 사 먹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마14:16)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사람들이 먹는 것을 ‘너의 문제’ 로 보았다. 그

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먹는 것을 ‘나의 문제’ 로 보셨다. 이것이 평화의 시작이다. 그래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다.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법에 걸리는 것도, 상식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영적인 책임이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히브리인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 그래서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영적인 책임이다. 평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마14:17)


먹어야 하는 사람은 오천 명이 넘는데, 먹을 것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다. 어떻게 오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을까? 평화를 이루는 영적인 책임과 현실 사이의 갈등이다. 각자 사 먹고 오라고 하면 간단하지만 영적인 책임을 지려고 하면 어려운 상황이다.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마14:18)

오천 명이 먹어야 하는 상황에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만은 매우 하찮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셨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만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마14:19)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가지시고 기도를 하셨다. <개역개정>에는 ‘축사’ 라고 기록되어 있고 <새번역>에는 ‘축복기도’, <표준새번역>에는 ‘감사기도’, <NIV 영어성경>에는 ‘thanks’ 라고 기록되어 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εὐλοῦντες>(유로게오), ‘감사를 드리다’ 라는 뜻이다. 김영봉 교수의 성서주석 <마태복음 II>에서 이렇게 말한다. “축사하다(εὐλοῦντες)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는 뜻이지 음식에 축복했다는 뜻은 아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어려운 상황에서, 고난의 상황에서, 절망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감사’ 를 드렸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마14:20) 감사를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셨는데,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 오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배부르게 먹었다. 감사의 영성은 평화를 이루는 힘이다. 

연합회 소식

7월, 8월 월례아침기도회



연합회는 7월 2일 오전 7시 30분에 7월 월례 아침 기도회를 열었다. 이천진 목사가 '감사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다. 한편 8월 기도회는 회원Y의 상황에 따라 개별 아침 기도회로 개최하였으며, 연합회는 8월 1일 오전 7시 30분에 8월 월례아침기도회를 열고 '하나님의 정의, 평화, 생명'을 주제로 연합회 영성팀 위원들의 말씀 나눔이 있었다. 이어 YWCA전국회원대회와 정의, 평화, 생명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큐메니컬 행동의 날

7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예큐메니컬 행동의 날'에 연합회 자원지도자 및 실무활동가 1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차경애 회장이 개회식의 개회예배 사회 순서를 맡았으며, 김은경 실행위원이 여성분과의 발제를, 박지영 실행위원이 복지분과의 발제를 하였다. NCK를 비롯하여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연맹,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기독교 방송이 공동주관을 한 본 행사는 '한국교회, 2013년을 구상한다!'라는 주제로 이루어졌으며, 생명·평화·정의 세상을 향한 한국교회 정책제안서를 발표하여 총 13개 부문별 정책을 제안하였다.

돌샘유치원 북한어린이돕기 모금 전달

마포 돌샘유치원과 암사 돌샘유치원(원장 권복희)의 원아들이 북한어린이돕기 모금운동을 펼쳤다. 연합회 평화나눔팀은 지난 6월 28일 마포 돌샘유치원에 방문해, 200여 명의 원아들이 모은 모금액 135만여 원의 전달식을 가졌다. 이어서 7월 3일에는 차경애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암사 돌샘유치원에 방문하여 220여 명의 원아들이 모은 모금액 150만여 원의 전달식을 가졌다.

안주꿈꾸며그리기 비전모임



연합회는 7월 4일 안주지원운동의 확산을 위한 '안주꿈꾸며그리기 비전모임'을 가졌다. 이날 옥수수 박사로 명성이 높은 김필주 박사를 모시고 대북개발원조에 관한 강의, 북한이탈 여성 홍경희 씨의 북한이탈과정과 남한에서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제3차 YWCA평화포럼

연합회는 7월 19일 '북한이탈주민과 평화, 어떻게 이를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3차 평화포럼을 진행하였다.(자세한 내용 p.22)

제2차 Y-틴 중앙임원회

7월 14일 제2차 Y-틴 중앙임원회가 연합회에서 열렸다. 이번 Y-틴 중앙임원회는 전국협의 회장 최선화를 비롯하여 전국 4개 지역 중앙 임원들이 모여 하반기 운동 계획과 청소년 전국회원대회 프로그램 기획 및 역할 분담을 논의하였다.

직업훈련담당실무자 워크숍



YWCA직업훈련담당실무자 워크숍이 7월 18일~19일 연합회에서 개최되었다. 지난해 말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이후, 협동조합의 8대원칙 이해와 여성인우회생협의 사례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한국YWCA 돌봄사업의 협동조합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또한 참석자들은 오는 8월 18일 전국회원대회가 열리는 SK핸드볼경기장을 방문하여 행사 사전 준비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싱크머니 기초강사교육

연합회는 7월 24일~26일까지 버들캠핑장에서 싱크머니 기초강사교육을 진행하였다. 13개 회원Y에서 총 23명의 교육생이 참석한 가운데

싱크머니 인정교재의 이해와 활용 방법, 금융강사로서의 역량 강화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기초강사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은 학교와 Y센터에서 싱크머니 정식 강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키다리학교 입학식

7월 20일~21일 키다리학교 입학식이 부천 버들캠핑장에서 개최되었다. 키다리학교는 올해 4개 지역(고양Y, 인양Y, 서울Y, 청주Y)에서 시범운영 중인 토요대안학교이다.(자세한 내용 p.16~)

2012 YWCA 어린이집교사 연수

2012 YWCA 어린이집교사 연수가 7월 26일~28일까지 거제도 망치수련원에서 열렸다. 전국 22개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행사는 연합회 박은실 국장의 YWCA 정체성 교육, 이천진 목사의 '영성과 찬양의 시간', 거제 탐방, 공동체활동, 새벽종소리 성서연구, 애광원 견학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YWCA의 어린이집 교사의 리더십 확장, YWCA의 운동영역의 연구 등 다양한 고민과 정책들이 제안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YWCA 90주년 청소년 전국회원대회

YWCA 90주년 청소년 전국회원대회가 8월 17일(금)~18일(토)에 잠실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된다. '평화마을 만들기'를 주제로 한 이번 청소년 회원대회는 다래고실 학생들을 포함하여 Y-틴, 대학Y까지 총 3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평화를 주제로 하여, 마음, 몸, 머리로 표현하는 워크숍이 진행되며, 참가자들이 직접 만드는 평화콘서트도 더불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개막식에는 홍보대사인 배우 여진구가 참석한다.

동정

• 정은경 청주YWCA 사무총장 취임 (2012.7.1)

여성가족부 주관 제17회 여성주간 기념식

- 대통령표창
홍기자 전주YWCA 중경회장
김은숙 목포YWCA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 국무총리표창
오현숙 대전YWCA 사무총장
- 여성가족부장관표창
남원YWCA

회원YWCA 소식

YWCA News

● 북부

강릉 YWCA

박현순 간사

● 제24차 회원대회 및 평화순례

강릉Y는 7월 16일 제24회 회원대회 및 평화순례를 열었다. 강릉Y 회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포인공폭포에서 출발하여 잔디공원에 이르기까지 순례의 길을 진행하였다.(자세한 내용 9p)

● 인터넷중독예방교육, 유해환경감시단캠페인

강릉Y는 7월 11일 강릉시정신보건센터 이영옥 팀장이 인터넷중독예방교육 강의를 진행하였다. 교육 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유해환경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 향상 기회를 제공하고 강릉시민에게 청소년 보호 의식 확산의 계기를 갖도록 하였다.

동해 YWCA

김정은 간사

● 제3회 여성인권아카데미



동해Y는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동해시 여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들의 힘을 모아, 지역사회에 희망과 행복을"이라는 주제로 제3회 여성 인권 아카데미를 열었다. 성평등한 여성 친화도시 정책의 이해, 지역을 살리는 성인지적 여성리더십,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방법, 여성친화도시정책 강화 전략 등의 강의를 듣고 함께 토론하였다.

서울 YWCA

박서영 간사

● 제6차 아시아 여성인권 프로젝트



서울Y는 7월 8일부터 18일까지 태국(방콕, 매홍손)과 미얀마(양곤)에서 아시아 여성인권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총 18명의 참가자들은 11일간의 여정 가운데, 태국YWCA, 미얀마YWCA를 비롯한 여성인권 관련 기관 탐방, 난민캠프 여성들과의 교류 및 봉사활동 등을 수행하였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권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창립 90주년 특별행사 뮤지컬 '모차르트'

서울Y는 창립 90주년 특별행사로 뮤지컬 '모차르트'를 7월 12일 오후 8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에서 막을 열었다. 올해로 29회를 맞는 서울Y 특별행사의 티켓 판매 수익은 서울Y 중점사업 프로그램 기금으로 사용된다. 올해는 소외여성에게 여성용품을 지원하는 '핑크박스' 사업과 탄자니아 대학생 IT봉사활동, 미얀마 난민여성 지원 활동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인천 YWCA 이하나 간사

● 여성이 만드는 착한 소비 EM한·일 국제교류



인천Y는 6월26일부터 3박4일간 이사·실무자 10명이 일본 오끼나와를 방문하였다. 평화와 환경운동을 펼치고 있는 오끼나와YWCA 회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매애를 느낄 수 있었다. 또한 EM 발견자인 오끼나와 류큐대학의 히가 테루오 교수와의 간담회를 통해 농업 뿐 아니라 환경정화, 공중위생, 일상용품, 건축분야 등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EM의 효과를 직접 듣고 향후 EM의 보급과 교육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춘천 YWCA 이명화 간사

● 회원증모발대식

춘천Y는 7월 16일 회원증모발대식을 가졌다. 이희수 회장 기도, 이천진 목사의 축복의 찬양과 함께, 회원증모의 중요성에 관한 강의가 있었다. 춘천Y 회원증모는 춘천시민들의 참여와 사랑이 모여 하나님의 기관으로 온전하게 YWCA가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회원운동을 펼치고 있다. 회원증모는 오늘 발대식을 기점으로 9월 말까지 진행된다. 이에 춘천Y는 춘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고, 앞으로 지역사회의 정의, 평화, 창조질서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경기

고양 YWCA 전선영 간사

● 고양여성영화제 개최

여성주관을 맞아 고양에서는 7월 3일부터 7일까지 '함께 하는 우리...그래서 참 좋다'라는 주제로 2012 고양여성영화제를 개최하였다. '두개의 선'을 연출한 지민감독과의 대화시간, 영화평론가 심영섭 특강, 힐링시네마를 시작으로 이란영화 '씨민과 나데르의 별거', 독일영화 '헤어드레서', 인도영화 '블랙'을 통해 각 나라별 여성의 삶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성주간행사로는 '평화위생대 만들기' 부스를 운영하여 북한여성에게 보낼 대안생리대를 시민과 함께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부천 YWCA 이지원 간사

● '부천YWCA 돌봄회원을 위한 민들레 강좌' 7월 교육



부천Y는 7월 27일 '부천Y 돌봄 회원을 위한 민들레 강좌'를 진행하였다. 이번 7월 민들레 강좌에서는 안경옥(부천Y 산모도우미 자치회장)님의 나눔의 글 낭독, 최순영(전 국회의원)이사의 YWCA 돌봄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홍은희(서울여자간호대학)교수

수원 YWCA 정지영 간사

● 2분기 본·지부 실무자 정책포럼

수원Y는 6월 15일 원전의 위험성과 대체 에너지 개발 필요성에 관한 '탈핵운동의 흐름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2분기 본·지부 실무자 정책포럼을 진행했다. 김익중 교수(동국대학교 의과대학, 반핵의사회 운영위원장)의 강의와 토론으로 이루어진 이번 포럼은 탈핵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에너지 개발 등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실무자들은 개인 컵 사용하기, 탈핵 홍보하기 등의 개인적인 방법부터 기관에서의 실천사항까지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으며, 탈핵운동과 연관된 활동들을 이어가기로 하였다.

안산 YWCA 문성은 간사

● 청소년 정치학교

안산Y는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중학교 여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정치교실과 리더십 캠프를 진행하였다. 지방자치에 이해하고 지역의 현안과 여성운동, 여성정치인과의 만남 등의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졌고 1박2일의 리더십캠프에서는 공약 만들기, 청소년 정책 제안 등 선거체험과 실습을 통해 미래의 여성정치 지도자로서의 꿈을 키우는 기회가 되었다.

안양 YWCA 조미영 팀장

● 가정폭력피해여성쉼터 꿈이있는집 이전감사예배 및 기념식



안양Y는 7월 4일 가정폭력피해여성쉼터 꿈이있는집 이전감사예배 및 기념식을 가졌다. 가정폭력피해여성쉼터 꿈이있는집은 지난 2월 28일 후원의 밤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하였고, 지역사회의 많은 후원으로 42평의 아파트를 매입해 6월 14일 이전을 완료하였다.

의정부 YWCA 김정은 간사

●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의정부Y는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의정부 지역 내 중고등학교 청소년 40여 명을 대상으로 하계자원봉사학교를 운영하였다. 이번 자원봉사학교 테마는 '환경'으로 분리수거와 재활용 교육, 우리지역 환경 실태파악과 재활용 발명품 만들기 등의 활동으로 청소년에게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미래 환경보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중부

대전 YWCA 강은혜 부장

● 역사기행 '철원평화순례'



대전Y 회원위원회는 5월 22일 철원 소이산으로 2012년 역사기행-철원평화순례를 다녀왔다. 한국Y 중점운동인 '평화'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역사기행은 이사, 위원, 회원 등 42명이 참여하였다. 1946년 건립되어 북한 노동당사로 사용되었던 건물에서는 전쟁의 비극과 평화교육의 필요성 등을 느꼈다. 이어 철원 국경선평화학교 정지석 목사의 안내로 소이산에 올랐다. 정상에서 북한땅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통일을 염원하였다.

세종 YWCA 홍진영 간사

● Y-틴 소록도 봉사활동



세종Y는 Y-틴과 함께 소록도를 방문했다. 올해로 세 번째 방문인 이번 봉사활동에서 가정방문을 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노래자랑을 개최하여 소록도 주민과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열었다. 청소년들의 따뜻한 봉사의 손길과 소록도 주민의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간에 훈훈한 시간이 되었다.

천안 YWCA 김상미 팀장

● 1박 2일 '굿대디 유치원'

천안Y는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굿대디 유치원' 캠프를 가졌다. 남양유업 천안신공장과 함께한 아이날기 좋은세상 '굿대디 유치원'은 일·가정양립 가정의 양성평등적 가사의 표본을 보여주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들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청주 YWCA 정미향 간사

● 제47회 창립기념예배



청주Y는 7월 11일 제47회 창립기념예배 및 정은경 사무총장 취임식이 있었다. 47년의 역사를 생명력으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지역사회에서 생명살림의 역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짐하였다. 이날 7월 1일자로 취임한 정은경 사무총장의 취임식도 진행하였다. 한편 간사, 총무, 사무총장으로 30여년을 헌신한 신영희 사무총장의 정년퇴임예배 및 퇴임식이 6월 26일에 있었다.

충주 YWCA 김애영 부장

● 키다리 인문학교 개강

충주Y는 7월 7일 키다리 인문학교를 개강하였다. 충주Y키다리학교는 청년리더십 함양과 인문학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16년까지 5개년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2012년 충주YWCA 키다리 학교는 '키다리 인문학교실에서 나를 만나다'라는 타이틀로 중3~고1 20명의 청소년 참가자와 8명의 대학생 멘토가 만나 자치적인 동아리 활동을 기획해서 그 속에서 인문학적 감수성을 고양하고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 서부

광양 YWCA 정정숙 간사

● 늘푸른 환경인형극단 어린이 환경인형극 준비

충주Y 늘푸른 환경인형극단은 '토끼와 거북'을 환경극으로 각색하여 준비하고 있다. 이 환경극은 9월부터 지역의 어린이들을 찾아가서 인형극을 연다. 충주Y 늘푸른 환경인형극단은 작년 7월에 창단되었다.

광주 YWCA 임서하 간사

●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캠페인

광양여성상담센터는 7월 4일 여성주간 기념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세상의 어떤 것도 가정을 대신할 수 없다'는 슬로건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체육대회에 참석한 많은 시민들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가정폭력은 근절하여야 하며, 가정 내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시키고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였다.

● 가정폭력피해여성과 아동을 위한 '행복나눔잔치'

광주Y 가정상담센터는 7월 3일 제17회 여성주년을 맞아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아동을 위한 행복나눔 잔치'를 열었다. 해마다 300여 명에 이르는 가정폭력피해여성과 아동의 심터인 광주Y 솔빛타운은 심신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1,000여 명의 시민들이 행사에 참여하였고, 피해여성과 아동 지원 기금 마련을 위한 하루 밥집과 작은 장터 그리고 양성평등 인형극 공연과 가정폭력 관련 영화 상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여성들이 만든 작품을 관람하였다.

● 조아라 선생 9주기 추모예배 및 추모식

광주Y는 7월 6일 '조아라기념사업회' 주최로 소심당 조아라선생의 9주기 추모예배 및 추모식을 가졌다. 조아라 선생은 나주 출생으로 수피아여고를 졸업, 광주Y에서 가정법률상담, 신용협동조합, 농촌봉사활동 등을 펼쳤고, 성빈여사, 계명여성복지관 등을 개소하여 전쟁고아들을 돕는 데 힘을 쏟았다.

남원 YWCA 조윤희 팀장

● 청소년금융교육 씽크머니 캠프

남원Y는 8월 3일 청소년경제금융교육 씽크머니 캠프를 진행하였다. 씽크머니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경제의식을 함양하여 합리적인 경제주체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대전 화폐박물관 관람과 금융시장체험을 비롯하여 경제기초이론, 청소년의 신용관리 등의 교육도 함께 실시하였다.

서귀포 YWCA 김지희 간사

● 2012 여성일자리박람회 'Open 잡 카페'



서귀포Y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7월 12일 서귀포Y 회관에서 여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Open 잡 카페-2012여성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였다. 박람회는 여성근로자 40여 명 채용을 위해 14개 기업이 현장면접에 참가하고, 24개 기업이 간접채용으로 참여하여 총 100여 명을 구인하게 된다. 취업지원을 위해 바리스타, 발 관리, 클레이공예 등 직업체험 및 유관기관홍보 등 홍보체험관과 이력서작성 컨설팅 부스, 이력서 무료 증명사진촬영, 메이크업을 지원하는 취업지원관을 운영하였다.

순천 YWCA 김정민 팀장

● 청소년 문화존

순천Y는 7월 21일 청소년 문화존을 열었다. 순천시 행동 청소년 수련관 마당에서 열린 이번 문화존은 '청소년 뮤직 페스티벌'이란 주제로 열렸다. 금강 책갈피 만들기, 부채 만들기 체험이 진행되었고, 난타, 노래, 댄스, 밴드, 통기타 등 청소년들의 다양한 음악활동을 선보이는 자리가 되었다. 순천Y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 참여를 이끌어내는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여수 YWCA 이경진 간사

● 2012여수세계박람회 자원봉사자고충상담실 운영

여수Y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에서 '자원봉사자고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여수YWCA회원으로 인원을 구성하여, 매일 오전10시~6시까지 상담 자원 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전주 YWCA 김은진 간사

● 돌봄으로 정의, 나눔으로 평화로운 공동체 만들기 행사



전주Y는 7월 6일 제17회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핵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회원 결의 및 실천다짐' 행사를 회원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하였다. 1부는 '생명과 평화를 위한 핵 없는 세상' 특강(김익중 동국대 의대교수), 2부는 실천다짐으로 '핵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회원 결의문' 낭독과 실천 행동을 퍼포먼스로 담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 동부

대구 YWCA 김세형 간사

●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 개관 18주년 기념예배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는 7월 18일 개관 18주년을 기념예배를 드렸다. 박주영 목사(여성인력개발센터 위원)의 '옳은 것을 분별하라'는 제목의 말씀과 생일떡 케익 자르기와 축하, 격려의 말씀 나눔으로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의 밝은 미래를 위해 격려하며 나아갈 방향을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었다.

마산 YWCA 이애라 팀장

● 씽크머니데이

마산Y는 7월 13일 창원삼계초등학교에서 씽크머니데이를 진행하였다. 6회기의 교실 수업을 마치고 정리하는 의미로 3,4학년 360명이 참가하여 다문화시장놀이로 운영되었다. 씽크머니 4행시 작성, 먹거리 부스와 만들기 부스, 다문화 홍보 부스를 마련하였다. 씽크머니 퀴즈 부스에서는 용돈을 벌 수 있도록 하였다. 어린이들이 씽크머니데이를 통하여 구입우선순위와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였다.

사천 YWCA 강선희 간사

● Y-틴 거리정화 활동

사천Y는 6월 16일 Y-틴 청소년들의 거리정화활동이 있었다. 해수욕장 일대에 있는 묵은 쓰레기를 줍고 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들이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갖게 하며 환경지킴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결혼이주여성 봉사활동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여성들이 삼소원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였다. 결혼이주여성들이 봉사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과 기여도를 높이고자 한다.

안동 YWCA 강주영 간사

● 다문화 생활적응 프로그램

안동Y는 다문화 이주여성 생활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7월 9일 천연화장품 만들기 교실, 7월 16일 한국음식만들기, 자국음식만들기 등을 함께 하였다. 천연재료를 가지고 각각 피부타입에 맞는 화장품을 만들어 사용하여 친환경생활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자국 음식만들기를 통해서는 그리운 고향을 생각하며 음식을 함께 만들고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 위로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진주 YWCA 최예진 간사

● 난쟁지역아동센터 나들이

난쟁지역아동센터는 6월 30일 환경아동극 '콩알콩알 고물놀이터' 를 관람하고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지원하는 '작은나눔-큰 생명 무료진료사업' 의 일환으로 심장병 무료검진을 받았다.

● 우리 학교는 친친와이파이존 희망과 상상 콘서트

진주Y는 7월 11일 '우리 학교는 친친와이파이존' 희망과 상상 콘서트를 열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콘서트는 삼현여자중학교와 인근 중학교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학부모의 자세' 에 대한 공개강좌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퍼포먼스를 펼쳤다.

포항 YWCA 안진숙 간사

● 우리 학교는 친친 와이파이존-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



포항Y는 우리 학교는 친친 와이파이존-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의 일환으로 7월 20일 학교폭력예방 토크콘서트 '희망과 상상콘서트' 를 열었다. 포항KBS공개홀에서 가정행복 심리연구소장 이상열 강사, 포스코, 포항Y가 함께 하는 '희망과 상상콘서트' 가 진행되었다. 포항시 학부모·학생 및 POSCO 임직원 총 200여 명이 모여 학교폭력문제에서 학부모가 해야 할 일과 현재의 청소년문제 및 대안을 모색하고 밝은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30여년 전통의 리치몬드과자점의 맛과 노하우, 장인정신과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대한민국 제과명장이 최초로 설립한 국내유일의 제과제빵학원 리치몬드제과기술학원입니다!!



“50여년 장인의 깊은 노하우를 후배 여러분께 바치겠습니다”

저희 리치몬드제과기술학원은 제과제빵의 모든 분야에 걸쳐 과학적인 기술 교육으로 제과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된 전문기술인 양성을 교육의 목표로 삼아 세계적 기술인을 양성하는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과명장의 자존심을 걸고 우수한 기술력과 성실한 교육으로 최고의 기술자가 되도록 리치몬드제과기술학원이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Richmont Academy Curriculum

- 정규반** 11개월 과정
대중 인기종류 및 전문 제과제빵 기술교육으로 제과제빵의 기초인 베이킹테이스트와 전문기술지도능력, 자격증취득 교육을 포함한 제과제빵이 전반적인 기술교육을 실시합니다.
- 자격증전문반** 4개월 과정
제과제빵 기술이 되기 위한 기초이론교육, 기능사자격증 취득교육과 현장실습을 위한 기업현장교육까지 현장직업교육을 포함한 제과제빵인 양성을 교육 실시합니다.
- 제이크와과자전문반** 2개월 과정(32회)
무엇을 빵을 만들고자 하는지에 따라 빵의 종류와 재료, 기구, 온도, 습도, 시간 등 다양한 실습을 통하여 자신만의 빵을 만들 수 있는 제과전문가입니다.
- 제빵반** 9주 과정(90회)
직업현, 현장실습을 위하여 100여명 제과제빵사들이 있는 제과제빵을 경험할 수 있는 반입니다.
- 초콜릿반** 5주 과정(10회)
기술적인 제과제빵사들이 전문으로 다양한 제과제빵 전문적인 기술을 이용하여 응용제품을 만들 수 있는 전문제과전문가입니다.
- 커피반** 별도지정
가정에서 커피를 내리시는 분들에게는 베이커리사격을 취하고 제과제빵에 필요한 에스프레소, 아산기, 핸드드립, 로스팅, 케노믹스기 기술을 배우실 수 있는 반입니다.
- 취미반** 2개월 과정(16회)
취미로 즐기시기 위한 빵, 케이크, 쿠키, 피자만들기 등 특별한 추억을 남겨주는 제과제빵의 재미를 경험하실 수 있는 반입니다.
- 토요취미반 / 토요특강반** 2개월 과정(8회)
여러 취미생활을 위한 실용적인 빵, 케이크, 피자, 쿠키 만들기를 위한 특별한 추억을 남겨주는 제과제빵의 재미를 경험하실 수 있는 반입니다.
- 기타반** 별도지정
초고성능 쿠키, CA코팅, 피자, 토스트, 당화물 등을 위한 특별반입니다.

● 교육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커리큘럼 및 커리큘럼은 홈페이지 www.richmont.co.kr RICHMON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치몬드제과기술학원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15
TEL. 02-324-0804~5

리치몬드과자점
● 상산점 TEL. 02-325-0221~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15
● 여대점 TEL. 02-313-4000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00-10 여대점 2층 201-202
● 인디앙점 TEL. 02-314-7484
www.richmont.co.kr

